



연중 제16주일 · 농민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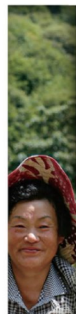
제25회 농민주일



2020
07
19 (일)



“개배어있어라. 너희가그알라 그시간을모르기때분이다.”
(마태 25.13)



일용할 양식을 돌보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맛난 먹거리로 주님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유기농산물 주문과 문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유기농산물을 식탁에 올려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 안에서 행복을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톨릭 농민회 생산자분회 모임 때, “왜 유기농 농사를 지으십니까?”라고 한 회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당연히 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생수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또 물품위원회에서 생산지 점검하러 유정란 농가를 방문하여, 5년째 유정란 가격을 3천7백 원에서 더 못 올려 드려서 죄송하다 하니, “신부님, 저희 유정란 가격이 한국에서 제일 싼 가격이지만, 대신에 우리농 생활공동체에서 양을 더 늘려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친환경을 시작한 것도 좋은 유정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드시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매년 농부들을 만날 때, 농부들의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생명의 열정을 감동으로 전해 받습니다. 이렇게 유정란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박을 산지 출하가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교구 내 30개 본당 생활공동체 회원님들이 수박에 이운을 덧붙이지 않고, 시중 가격보다 5천 원 정도 싸게 본당 신자분들에게 흑수박의 달고 시원한 맛을 즐기는 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구 내 1차 농산물은 우리농 본부와 생활공동체 이운 없이, 산지 출하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농 생명운동이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의 정성 안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생명운동에 기여이 동참해 주시고, 봉사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본당 생활공동체 회원들과 땅을 가꾸고 돌보는 농민들에게 농민 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에서 출하되는 1차 농산물은 4월에 산나물과 딸기를 시작으로, 5월 토마토, 6월 매실, 양파, 감자, 수박, 마늘, 자두, 블루베리, 9월 배, 사과 10월 단감, 감말랭이, 참다래, 쌀, 잡곡류, 꽃감, 그리고 다시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연중 생산됩니다. 생산자, 교구 본부 그리고 본당 생활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1차 농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우리농 정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토록 맛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즐기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강형섭 미카엘 신부 | 농어촌사목 겸 가톨릭 농민회 담당



제 1 독 서 지혜 12,13,16-19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제 2 독 서 로마 8,26-27
복 음 마태 13,24-43 또는 13,24-30

주일 진레



생명 농업, 지구와 인류의 희망입니다!(요약)

산업화된 농업

20세기 후반 농업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갑절로 증대되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태워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 덕분에 작물의 생산량은 크게 늘고 농촌의 노동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겨가면서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해진 이들도 있지만, 아직 전 세계에서 10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농업의 산업화가 농업의 바람직한 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자본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농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큰 수익을 내지만, 영세한 농민들은 힘겨운 노동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30퍼센트가 농업에 사용되고, 식량 생산의 95퍼센트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산업형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형 농업은 토양 생물을 실종시키며 토양 산성화와 수질 오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화, 도시화만이 살길이라고 농업과 농촌을 천시하며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고, 노인만 남겨진 농촌 사회는 초고령화되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위기, 환경과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땅은 죽어 가고,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퍼센트로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 수출을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는 당장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농업을 그저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효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논리로만 평가하면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우리 나라에서 산업화로 농촌의 붕괴가 시작되자, 한국 교회에서는 농민들 스스로 '가톨릭 농민회'를 세워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토대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여 농업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세상,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생명 가치를 확립하고자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유기 순환적 농법으로 토양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도시 소비자들은 생명 농산물을 소비하며 지지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농민이 짊어진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깨닫고, 근시안적인 시장 가치만 추구하기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바라보며 농촌과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창조 질서를 보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야 인간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사회 복음화를 이루어 갑시다.

2020년 7월 19일 제25회 농민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인간이라는 모순적 존재를 위한 기도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의식성찰Examen’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진의 동상은 젊은 예술가 제레미 라이크먼Jeremy Leichman과 조안 베네펠Joan Benefiel의 2011년 작품으로, 미국의 예수회 소속 페어필드 대학 Fairfield University의 머피 이냐시오 영성 센터 Murphy Center for Ignatius Spirituality 앞에 세워져 있다. 실물 크기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두 이냐시오 성인이 거울을 보듯 마주 서 있는 형상이다. 굳게 다문 입,



제레미 라이크먼과 조안 베네펠 <의식성찰>, 2011, 페어필드 대학

건어 부친 소매, 디디고 오르는 두 발의 자세, 두 동상 사이에 흐르는 묵직하고 섬세한 긴장, 이 모든 것이 성찰의 순간에 필요한 의식의 정동靜動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 눈을 끄는 것은 팔의 모양새다. 언뜻 뒷짐을 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왼손이 힘주어 오른쪽 손목을 거머쥐고 있다. 마치 오른팔의 움직임을 제어하기라도 하듯 말이다. 이냐시오 성인이 왼손잡이였다는 기록은 본적이 없으니, 그에게는 오른손이 익숙하고 빠른 손이었을 게다. 군인 출신이니 그 손은 무엇보다도 칼을 빼고 휘두르며 공격과 방어를 하도록 단련이 되어 있었을 게다. 그 중요한 손을 서툰 왼손이 붙잡고 있다. 의식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칼로건 말로건, 의식성찰은 나의 결함을 도려내고 변명하고 땀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안에 떠오르는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 말하는 듯 하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중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옳고 그른지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하느님은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으니” (창세기 1.5) 어둠 또한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다. 빛과 어둠은 상보적인 것이며 어둠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는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이끄시는 이의 손길을 찾는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노래했듯, “나를 가장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쪽으로” 밤을 길잡이 삼아 걸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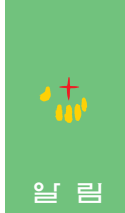
인간은 빛과 어둠에 모두 노출되어 있기에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인간의 불완전한 실존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스스로의 내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누구든 결핍 투성이의 비합리적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마련이다.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경험은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하다. 그러나 그 경험은 또한 한없이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무한하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회개와 구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림자를 마주 보지 않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 무시하거나 덮어두거나 피하려 하면 그림자는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의지를 빼앗는다. 즉, 죄성에 제압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의 죄는 다 이해할 수도, 근원을 파헤쳐 제거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 죄를 표현하는 성서의 단어는 신약 성서만 보더라도 각양각색이다. 무지(ἀγνότης), 교만(ὑbris), 불복종(παρακοή), 넘어짐(παράπτωμα), 율법을 어김(ἀνομία), 경계를 범함(παράβασις), 조화를 깨뜨림(πλημμέλεια) 등, 죄는 다양한 얼굴과 신축성을 갖고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된 선택들과 얽혀 파괴적인 힘을 드러낸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더라도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 비참한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나 나약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순간 하느님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고백은 하느님의 심판과 저주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희망과 긍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죄는 더더욱 신비다.

의식성찰은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 그림자와 희망을 가식 없이 받아들이는 기도다. 의식성찰은 모든 기도가 그렇듯 다른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여 그 그림자가 마술처럼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알 뿐이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며 또 다른 유혹이 닥쳐 올 때 조심하여 조금씩 조금씩 왜곡된 습성을 줄여갈 수 있을 뿐이다. 밝고 또 어두운 이나시오 성인이 서로에 대한, 아니 스스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자제하며 다만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듯 말이다.

인간은 스스로도, 타인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림자에 걸려 넘어지는 이웃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자각하고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빌어주는 것이다. 넘어진 이웃을 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아끼고 신뢰하던 사람이 불현듯 추한 그림자를 드러낼 때, 우리는 상처 받고 실망한다. 그와 공유하던 소중한 신념과 가치가 함께 무너지는 듯하여, 우리는 마치 스스로의 그림자를 거부하듯 그의 그림자도 거부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기억하고 싶어한다. 그러는 사이 그림자는 덩치가 커져 사방팔방으로 칼을 겨누고 폭력을 휘두른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위한,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황망한 죽음과 뜻밖의 행적으로 나 또한 비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또 다시 시작된 진영 갈등으로 더 마음 아프다. 이미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온 말들에 또 말을 보태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나는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고인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성폭력 피해 고소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피해 고소인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고인이 남긴 유산을 펴내는 것으로 이해되어도 곤란하다. 외롭고 두려울 피해 고소인과의 연대도, 고인에게 삶을 빛진 이들의 애도도, 내 생각에는 둘 다 존중되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이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권력을 무기로 삼은 성폭력은, 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감수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고인조차 무너뜨릴 정도로 괴력을 가진 우리 사회의 추한 그림자다. 그의 영혼이 왜곡된 습성을 버리고 스스로 원했던 바른 길을 찾도록 나는 기도한다. 또 진실을 밝히고 이 일을 계기 삼아 권력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상화된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고 방지할 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인이 지켜온 신념과 가치를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교구/본당

전국 교육·청소년국장 회의

일시: 7월 22일(수)

장소: CBCK

전국 사목국장 회의

일시: 7월 23일(목)~24일(금) 1박 2일

장소: CBCK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

일시: 7월 23일(목)

장소: CBCK

청년 신앙강좌

일시: 7월 26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청년부 055·249·7065

46차 창세기 연수

일시: 8월 16일(주일) 14:00~20:3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일시: 8월 21일(금) 16:00~2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2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장사: 서시몬(시몬)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임기호 보니파시오 010·6245·4967

파견미사: 8월 23일(주일) 14:00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봉사자 교육

일시: 하반기 - 8월 22일(토), 8월 23일(주일),

9월 6일(주일)

09:30~18:00 (총 3일)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인원: 선착순 20명

참가비: 11만 원(점심 포함)

신청: 7월 31일(금) 18:00까지,

Fax- 055·249·7029 또는 gasamok2@

cathms.or.kr로 신청

계좌: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

※ 본당+참가자 실명으로 입금

(예-양덕동-홍길동)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제17차 약혼자주말

일시: 9월 4일(금) 19:30~6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1인 14만 원(부부당 28만 원)

신청: 8월 9일(주일)까지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FAX- 055·249·7029

▶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7월 22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7월 23일(목) 13:30

장소: 교구청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49만원 (20년 10월/ 21년 4월)
 070-4086-0207 www.catravel.co.kr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제주생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생활절식·효소단식
 ▶미·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장
 ▶지리산 산청 발효·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미디어국 055)249-7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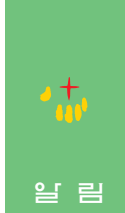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
 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사: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파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기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
 합니다.

일사: 7월 27일~29일, 7월 31일~8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
 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사: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바로잡습니다

가톨릭마산 7월 12일자 8면 “교구
 사제 인사발령”을 통해 안내된 김용
 신부 군중 전역일은 7월 1일이 아닌
 ‘6월 30일’로 바로잡습니다.

농민 주일 2차 현금 실시

제25회 농민 주일을 맞아 2차 현금을
 실시합니다. 2차 현금은 가톨릭
 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에서 펼치고 있는 ‘생명·공동체운동’
 의 밑거름이 됩니다.

〈울지마톤즈〉 후속 영화 ‘부활’ 할인 안내

- ▶ 내용: · ‘부활’ 할인 안내 문구가 인쇄된
 온/오프라인 주보 지참 후
 매표소에 인증 시 1인 6천 원
 발권
 · 20인 이상 단체 관람시 1인
 6천 원 발권

▶ 기간: 7월 10일(금)부터 종영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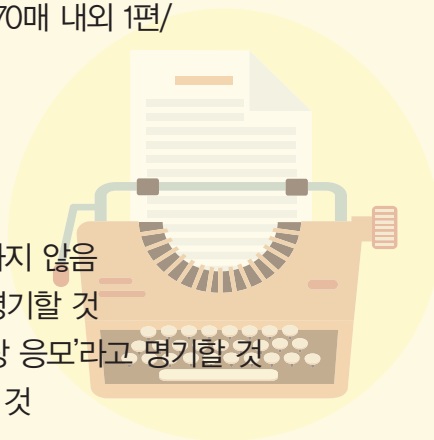
▶ 진행극장: ‘부활’ 상영 중인 전국 CGV

※ 타 쿠폰 및 이벤트
 중복할인 불가,
 현장발권에 한함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가르멜의 꽃이시며 피어난 포도나무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가르멜 수도회는 성모님께로부터 보호와 도움의 징표로 갈색 스카플라를 받은 7월 16일을 가장 장엄한 축일로 지냅니다. 수도회의 수호자이시며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는 수도회가 변화와 쇠퇴의 위기 속에 있던 1251년 7월 16일 성 시몬 스톡에게 발현하셔서 스카플라를 건네주시며 “이것은 모든 가르멜 회원을 위한 특권이며 누구라도 이것을 몸에 지니고 죽는 자는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지 않고 구원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로 스카플라 769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는 교회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와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새롭게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봉사에 봉헌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한 영혼의 전형이신 성모마리아 안에서 그 모범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자로서의 신앙의 여정에서 마리아와 일치를 상징하는 스카플라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모님의 생애와 성덕을 관상하고 모방하면서 그분을 덧입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셨거나 하셨으리라 여겨지는 것을 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마리아의 삶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동체의 일상 안에서 성모마리아의 살아있는 현존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보여 주신 기도와 관상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성모마리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느님께만 속하시고 하느님만을 바라보신 성모님의 일생은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루카 2,19).”라는 성경 말씀에서 잘 드러나듯 성모마리아는 깊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자의 신비를 관상하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 자신의 역사를 인지 하셨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언제나 예수님 곁에 서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 아드님과 완전하게 일치하신 성모님의 신앙의 삶은 바로 기도와 관상에서 흘러나오며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성모님의 성의聖衣를 평생 입고 사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듣는 기도와 관상은 하느님 은총의 문으로서, (성모님처럼) 귀 기울여 들음, 수용과 헌신, 신뢰와 의탁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치지 않는 사랑은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어머니의 사랑 특히 성모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지나치고 한계가 없습니다. 바다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광야의 여정에 있는 스카플라를 입은 모든 이들과 당신께 신뢰를 두고 있는 모든 이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려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 함께해 주십니다. 성모님처럼 기도와 침묵으로 하느님만을 위해 광야의 삶을 사는 그 만큼 우리도 교회와 인류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가르멜의 꽃이시며 바다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